

농어촌 기본소득 8월 지급 만전 무주군, 사회적 고립 예방 총력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 갖고 기본계획 심의·의결

진안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신규 위원으로 이우석 진안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과 김미화 주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에 위촉장을 수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진안군은 지난 6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7개 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지급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앞으로 7월 중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7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소 기준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발표일인 6월 11일로, 2026년 6월 10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하고 있는 군민은 신청개시일인 7월 13일부터 바로 신청

이 가능하다. 6월 11일부터 신규로 전입한 신규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일 거쳐 신청일의 익월 분부터 소급 지급 된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는 8월에 마을조사와 읍면위원회의 실거주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말일에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더블체크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역 내 1인 가구가 6월 기준 7,251가구에 달함에 따라 고독과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리교실과 원예 프로그램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군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6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 협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군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독·고립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외에도 무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인 '더블체크'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전북지역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사업으로, 담당 공무원과 읍·면 팀장이 상담 내용과 지원 가능 서비스를 함께 재확인해 복지서비스 누락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일행, 베트남 다낭시 껌레동 방문

무주군이 태권도를 비롯한 문화·관광·경제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황인홍 군수 일행은 지난 24일부터 국제우호협력도시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 중으로, 오는 27일까지 2박 4일간 지역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껌레동 인민위원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24일은 '무주군·다낭시 껌레동 간 국제 우호 교류 협약'은 물론, 껌레동 설립 1주년(2025.6.24.)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현지에 도착한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 무주군

대표단은 응우옌 티 비엣 히엔 부서기(단장) 등 껌레동 인민위원회와 공식 회담을 시작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민간 교류 활성화, △국제 우호 도시 간 신규 교류 및 교육모델 발굴, △두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방안 등이 논의됐다.

25일에는 다낭 현지의 한국 국제유치원을 방문해 '한국어 및 태권도 문화 통합 교육모델'을 소개하며 K-스포츠와 한국 문화를 전파해 교육·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 7월 17~19일 개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장수군의 대표 여름 계곡 축제인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이 지난 24일 개최된 추진위원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장수쿨벨리페스티벌 추진위원회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하고 공연·체험 콘텐츠 구성부터 교통과 안전·먹거리 운영까지 축제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은 오는 7월 17



일부터 19일까지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지며, 이번 축제는 '자연이 품은 계곡, 행복이 머무는 하루'라는 슬로건 아래 장수의 청정 자연과 시원한 계곡을 활용한 체험형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제9대 장수군의회 폐원식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24일 장수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장수군의회 폐원식을 갖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폐원식에는 최한주 의장을 비롯한 제9대 장수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공로패를 전달하며 지난 4년간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의 노고를 기렸다.

제9대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란 의정목표 아래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며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국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폐원식을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10대 장수군의회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위기 대비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

장수군은 지난 24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이정우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침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군수는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하천공사장,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을 둘러보며 시설물관리 상태와 배수 기능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 대피 계획과 비상 대응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확인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진안군

진안군은 25일 진안읍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임도희 6·25 참전유공자회 진안군지회장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보훈유공자 공로패 수여, '보훈의 달' 기념

념 초등학생 홍보 포스터 공모전 시상, 기념사, 축하공연,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훈유공자 공로패는 6·25 참전유공자의 소속 지성용, 빈정규 씨에게 수여됐다. 또한 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관내 초등학생 대상 홍보 포스터 공모전에서 수상한 백운초 손이수 학생 등 4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기념공연으로는 진안군 마이나무 어린이 합창단(지도 소프라노 김나라)이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

무주군은 25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 협관에서 제7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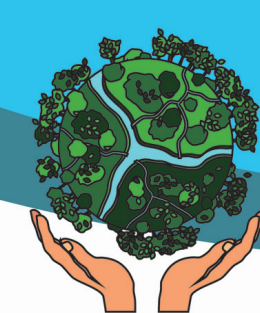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신윤식-이하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기념식을 비롯한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민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와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보훈·안보단체 회원들과 6·25 참전 유공자 등 100여 명이 합


께했다. 기념식에서는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 최동환 씨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으로 보훈 가족의 귀감이 돼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한 김필규 씨가 평소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적극 동참해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김영봉 씨는 지회 운영위원으로서 운영 건전성 확보와 회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무주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